

국내 닭고기 수급안정을 위해 수입 지역화 추진, 재고물량 방출 독려, 국내 생산 확대

- 브라질 AI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 허용(지역화) 절차 추진 및 수입처 다변화
- 육용 종계 생산기한 연장 한시 허용, 닭고기 계열사 병아리 추가입식 확대
- 닭고기 관련 식품·외식 가격 인상 방지 위해 생산확대·재고물량 방출 독려

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.23(금) 10:00 정부서울청사에서 「물가관계차관회의」를 주재해 ①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 관련 동향 및 대응방안, ②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.

* 참석부처 : 기재부(주재), 농식품부, 해수부, 산업부, 국토부

김 직무대행은 “최근 농산물,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,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조류인플루엔자(AI)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”고 언급하면서 “국민들의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갈 것”을 강조하였다.

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(지역화)하기로 결정하고,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~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, 상대국과 협의,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.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·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. 수입 물량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내산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. 육용 종계 생산기한(현재 64주령 미만 종계) 연장*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,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하여 국내 병아리 추가입식을 확대하는 한편,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.

*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금지 → 기간 제한 없음

한편, 금번 수입 중단이 닭고기 관련 식품·외식 가격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계열업체, 수입업체, 생산자단체 등 시장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, 생산 확대, 재고물량 방출 등 정부의 가격 및 수급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독려할 예정이다.

기획재정부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 담당자 담당자	과 장 사무관 사무관	임혜영 (044-215-2770) 연정은 (jey0903@korea.kr) 김문수 (sin20219@korea.kr)
	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	책임자 담당자	팀 장 사무관	최정빈 (044-215-2931) 가순봉 (07mmuser@korea.kr)
농림축산식품부	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배민식 (044-201-2681) 김성만 (bomipapa@mail.go.kr)
	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이연섭 (044-201-2336) 이동민 ldm0518@korea.kr
해양수산부	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서기관	류선형 (044-200-5440) 김수정 (sjcrystal@korea.kr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